

3일 Market Index			
<span style="color: red;">▲</span> 코스피	5288.08 (+338.41)	<span style="color: red;">▲</span> 코스닥	1144.33 (+45.97)
<span style="color: red;">▲</span> 금리 (국고채 5년)	3.189 (+0.037)	<span style="color: blue;">▼</span> 환율 (원·달러)	1441.70 (-22.60)



# 메모리 가격 올해도 천정부지 삼성·SK, 역대급 실적 다시쓴다

작년 PC 출하량 예상보다 많아져 ‘공급부족’ D램값, 90% 상승 전망  
HBM4 주도권, 실적의 핵심 변수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지난해역 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고 공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확산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사의 영업이익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HBM4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여부가 향후 실적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양사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기준 D램 평균 가격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수치였던 55~60%에서 90~95%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낸드 또한 33~38%에서 55~60%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4분기PC출하량이 예상보다 많아져 PC용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요 PC 주문자위탁생산업체(OEM)들은 메모리 재고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는 서버용 D램 또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분기 서버용 D램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전분기 대비 90% 올라분기별 역대 최고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에 쓰이는LPDDR5X 등 저전력 D램의 1분기 계약 가격 또한 전 분기 대비 90%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낸드 역시 메모리사들이 D램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진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 기업용 솔

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의 가격은 1분기 53~58%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낸드 전 제품 가격은 55~60%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도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익 예상치를 각각 245조원, 179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던 HBM 사업 부진과 D램 이익률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SK하이닉스 또한 전 제품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 모습.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오는 5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뉴시스

## 삼표레미콘 부지에 79층 빌딩 ‘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든다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본격 사업 단계에 진입한다. 특히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6000억원을 투입해 성수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거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5일 결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서울시, 세부 개발계획 내일 고시  
공공기여 6000억 투입 교통 개선  
지역기반 스타트업 성장 지원 거점

이번 결정고시는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이후 시와사업자가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작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1977년부터 약 49년간 레미콘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교통 불편 등 민원과 사업추진 중 부침이 지속되던 곳이다. 서울시가 레미콘공장 철거 후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서울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약 6054억원은 지역 교통 문제 해결,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스타트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연면적 5만3000㎡ 규모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에 투입,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2300억원을 활용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신설 ▲성수대교 복단 램프 신설 ▲응봉교 보행교신설 등 지역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숲과 부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데크’가 설치되고, 지상부에는 시민에게 상시 개방되는대규모 녹지와광장이 들어서 서울숲의 녹지축이 부지가확장되게끔 조성된다.

레미콘공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는 연내 토지 정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신속한 건축심의회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 주민 고통과 번번이 무산된 사업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기업·행정·시민 모두가 이기는 해답을 찾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 서울 전역의 도시 혁신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정권 ‘안정론’ vs ‘심판론’… 여야 대격돌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李 정부 2년차, 국정평가의 지표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가 3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여야의 치열한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정당에 소속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경선 등을 거쳐 공천돼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5월29일~30일에 치러진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에 펼쳐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2년차에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정권안정론’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사법·행정 독



광역시차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가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를 문제 삼으며 ‘정권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주자는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의 현역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칭찬한 바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일 성동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곧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오세훈 시장이 3연임이자, 5선 도전이 유력하다. 다만, 오 시장은 당내 ‘윤여게인 세력’과 절연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우경화’된 국민의힘에서 서울

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을지 난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의 당 내 대항마로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당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6선의 추미애 의원, 3선 권철승 의원, 정청래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근 몇 번의 대형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약세를 보인 경기도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이나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중도 개혁 이미지의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장은 민주당에서 김교흥 의원(3선)과 정일영 의원(재선)이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의 출마가 확실적이다.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합당 제안에 與 내홍 지속…친명 “졸속 합당 중단하라” 서명운동 /사진 뉴시스  
▲국힘, 與 교섭단체 연설에 “민생 외면 자화자찬…李정부 모래성 지키기 급급”

▲與 “5일 본회의 강력 요청…개혁법안 최소 2개 처리”  
▲이준석, 국힘 소장과 강연서 “장동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

▲방미길 오른 조현 “루비오와 팩트시트 빠른 이행 위해 협의할 것”  
▲정청래 “李 ‘코스피 5000 공약’ 비웃던 분들 지금 표정 궁금”



# 신소재·신약 개발 돕는 AI 기술 ‘엑사원 디스커버리’ 특허 등록

## LG AI연구원

유망 후보물질 수습배 빠르게 발굴  
데이터 분석부터 전과정 보호대상  
향후 ‘화학 에이전틱 AI’ 발전 계획

LG AI연구원이 국가대표 AI 파운  
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전  
부분 1위를 달성하며 기술력과 경쟁력  
을 입증한 가운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도 앞장서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신소재 및 신약 개  
발을 지원하는 ‘AI 연구 동료’의 핵심  
기술인 ‘엑사원 디스커버리’의 특허 등  
록을 최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AI 기반 신소  
재·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논문과 특허,  
분자 구조,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멀  
티모달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보다 수  
십 배 빠른 속도로 유망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  
축할 수 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특허(등록번호  
제2869378호) 등록으로 신물질 연구개  
발 프로세스 전체를 지적재산으로 보호  
함과 동시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비정형 문서에서  
분자 구조를 추출하고 번호를 부여하

며, 연구자의 질의에 따라 특정 라벨을  
예측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신물질을  
예측하는 일련의 방법론과 시스템 전  
과정이 청구항에 명시되어 있어 단순  
알고리즘 개선으로는 우회하기 어려운  
‘길목 특허’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수식이나 알고리즘에 집  
중한 다른 AI 특허들과는 달리 LG AI  
연구원의 특허는 데이터 분석부터 실험  
설계와 신물질 예측까지의 전체 과  
정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가 유사한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연구자가 직  
접 분자 구조나 화학식을 입력하거나  
수동으로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엑사원 디스커버리의 핵심 차별  
기술적인 속도와 편의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AI 연구 동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질의하고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LG AI연구원과 특허  
사용 계약이 필수적이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이 특허는  
LG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을 실  
천함과 동시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독  
점적 권리 장벽을 구축한 대표적 사례”  
라고 설명했다.

LG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화장품  
소재, 배터리 소재, 신약 개발 등 다양  
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LG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향후 배  
터리, 반도체, 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산업의 판도를 바꿀 신물질을 찾아  
내는 역할을 하는 대표 ‘화학 에이전틱  
AI’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허 등록은 구 대표가 강조한  
‘기존 성공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의 실천 사례로 볼 수 있다.

구광모 (주)LG 대표는 최근 2026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  
곡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  
다”며, “혁신을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  
이 변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그 시  
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경재 LG AI연구원 IP 리더는 “A  
I 모델의 성능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거나 잊힐 수 있지만, 핵심 프로  
세스 특허를 선점하는 것은 기술을 법  
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L  
G는 앞으로도 국가대표 AI를 만드는  
기업, 글로벌 AI 경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LG-HY BCM 전경.

/LG화학

## LG화학, 中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中 양극재 기업 韓 자회사 청구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 승소  
가처분 인용땀 국내시장 파장 예고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  
(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  
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침해금지 가  
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  
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톤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국내 양극재 공급망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  
세능원은 세계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으로 알려진 중국 롱바  
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재세능원이 청  
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  
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  
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특  
허 유효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의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  
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  
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  
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  
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  
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재세능원은 자사 기술이  
독자적이며 LG화학의 특허는 무효라  
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  
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  
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과 판매, 유  
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충북  
충주에 연간 7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당 공장이 가동을 멈출 경우 국내외 양  
극재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

## 물가 ‘안정세’… 주요 성수품 가격은 급등

데이터처, 1월 소비자물가 2.0% ↑  
농·축·수산물 상승폭 전년비 축소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  
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소비  
자물가도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설 명절을 한 달 앞둔 시  
점인 만큼 주요 성수품의 경우,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2.0%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8월 통신사 요금인  
하에 힘입어 1.7%까지 둔화한 이래 5  
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9월 2.1%, 10월 2.4%, 11월 2.4%, 12월  
2.3% 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치인 2.0% 수준까지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경우 1년 전보다  
2.6% 올랐으나 지난해 12월(4.1%)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농산물  
(2.9→0.9%)과 축산물(5.1→4.1%), 수  
산물(6.2→5.9%) 상승세가 모두 지난

해 12월에 비해 둔화했다.

하지만 성수품을 중심으로 일부 품  
목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조  
기(21.0%)와 쌀(18.3%), 고등어  
(11.7%), 사과(10.8%), 수입소고기  
(7.2%), 달걀(6.8%) 등의 상승 폭이 컸  
다. 반면 무(-34.5%), 배(-24.5%), 배  
추(-18.1%), 파(-9.9%), 토마토(-6.  
2%) 등은 크게 내렸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동월에  
비해 2.8% 올랐다. 빵 +3.3%, 라면 +  
8.2% 등이다. 선풍적 인기몰이 중인 두  
바이쥬크쿠키(두쥬쿠)는 조사대상 품  
목은 아니지만 주원료인 초콜릿이  
16.6%나 뛰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한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홍성군의회의는 새해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 책임 있는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 2026년도 홍성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안내

○ 기 간 : 2026. 3. 31.(화) ~ 4. 3.(금)

○ 안 전 : 조례안 등 일반안전 처리



홍성군의회

## 한전, 美 광서 재생전력 5억달러 PF 성공

해외서 사업성·금융조달 역량 입증  
완료시 2만가구 연간 전력수요 충족

한국전력공사는 미국 광 서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  
지 전력사업에 대해 모회사 보증없이  
총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  
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 변동  
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국수출입은  
행을 중심으로 국제사업은행이 참여한  
대주단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  
로 성사됐다. 한전해 해외 전력사업에  
서의 사업성 검증 능력과 금융 조달 역  
량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다.

해당 사업은 광 전력청(Guam Pow  
er Authority)이 발주한 프로젝트로,  
광 요나(Yona) 지역에 태양광 132MW  
와 ESS 84MW/325MWh를 구축해 친  
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  
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의 전  
력을 생산해 광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  
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 내 한전 주도 발

전 설비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  
MW로 확대된다. 이는 광 전체 발전용  
량(708MW)의 약 55%에 해당해, 한전  
의 현지 핵심 전력사업자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분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  
(EPC), 운영·관리(O&M)까지 전 주기  
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  
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팀 코리아’  
협업 모델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전  
은 이를 기반으로 북미 지역 내 유사 전  
력사업 수주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PF 체결  
은 모회사 보증없이 글로벌 금융시장  
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  
을 조달하여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  
S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금융계약을 계기로 북미  
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해  
외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디지털자산시장 급락… 비트코인 38%·알트코인 50% ↓

## 워시쇼크

美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영향  
투심 지수 ‘극도의 공포’ 수준  
일각선 디커플링 현상 우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디지털자산이 급락했다. 워시 지명자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물로 여겨지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달러가 강세 전환한 영향이다.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작년 10월의 고점 대비 38% 하락했고, 주요 알트코인의 낙폭은 약 50% 내렸다.

3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정오께 1BTC 당 7만778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1.81% 상승한 가격이지만, 8만 달러 채진입에는 실패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 아래로 내린 것은 작년 4월 이후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빙셀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9개월 만에 8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뉴시스

9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의 주간 낙폭은 12.29%에 달했으며, 지난해 10월 초 기록한 최고가 12만6200달러와 비교해서는 38% 하락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의 가격 하락세도 거세다. 디지털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한 주 동안 22.1% 하락했으며, 작년 고점 대비 하락률은 5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총 3위 바이낸스(BNB)는 13.2% 하락해

작년 고점 대비 44% 내렸다. 시총 4위 리플(XRP)은 15.9% 하락해 작년 고점 대비 55% 가량 하락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영향이다. 워시 지명자는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매파적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는 지난 몇 달간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달러 약세를 부추겼으

## 〈고점대비〉

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를 선반영했다. 시장 예측을 뒤집은 트럼프의 지명 이후 달러 가치는 빠르게 급등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은 빠르게 얼어붙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2일 ‘극도의 공포’ 수준인 15까지 내렸다. 작년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때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지난 2024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발 자금,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안전자산’인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와도 다른 흐름을 보였다. 디지털자산 전반의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3개월 연속

으로 자금이 유출됐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선은 7만5000달러 선에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험 회피 심리에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자금이 다른 투자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시장 데이터 업체 카이코의 애덤 매카시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본 흐름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재평가하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투자 리서치회사 가베칼리서치의 루이스 게이브 CEO는 “지난 한 해 동안 ‘급성장’이라는 타이틀은 인공지능, 귀 금속, 반도체 관련 자산들이 차지했다”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 상품에서도 디지털자산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굳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PP-SO 갈등 격화… 방미통위 중재 시험대

###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안

SO업계, 지급총액 ‘보정옵션’ 포함  
PP업계 반발… “3년간 775억 손실”  
전문가들 제도적 정비 필요성 지적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 업계가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두고 PP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중재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 등 PP업계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SO 측이 강행하려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3년간 PP업계에 약 77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P업계는 “SO의 경영 악화는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PP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P 업계와 SO 업계간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다. 이 기준안은 SO의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료방송사의 매출액 증감률을 반영하고,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타 사업자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SO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 총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보정옵션’이 포함되었다. SO 측

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O 업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케이블TV 매출액은 2014년 3조2459억 원에서 2024년 2조7272억 원으로 약 1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3% 급감했다. 2024년 기준 52개 SO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PP 업계는 해당 산정안이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PP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PP협의회 등은 SO가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PP 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3.8%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용료 감액이 현실화될 경우 제작 투자 위축과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갈등은 개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9월부터 새 산정기준안을 적용해 CJ ENM에 감액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CJ ENM은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맞섰다. 딜라이브 등 다른 MSO 사업자들도 기준안 적용을 검토하거나 실행 중이며, 대다수 SO 업체가 재계약 시점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

상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한다. 그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왔으나, 개별 기업 간 계약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정책을 이관받아 통합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방미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콘텐츠 사용료의 최소보장액(MG) 설정, 산정 시 반영해야 할 필수 요소와 산식 구조의 명시, 협상 결렬 시 실효성 있는 중재 절차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가 수신료의 약 30%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반면 SO는 90%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별 격차가 크고, 협상력 또한 균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기준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SO의 지급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와 IPTV와의 대가 산정 차이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콘텐츠 대가가 줄어들면 결국 국내 IP가 해외 OTT로 유출되거나 제작 투자가 위축되어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한국 떠나는 고액자산가 급증 재계 “상속세 제도 개선 필요”

대한상의 변화 없이 장기간 제도 지속  
과도한 부담으로 자본 국외이탈 부추겨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4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자본의 국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납부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 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고,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상속세 부담 확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 “HBM4 경쟁우위 기업이 수입 유리”

### 》1면 ‘메모리 가격 올해도…’서 계속

업계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의 수혜를 누가 더 크게 가져갈지를 가르는 변수로 HBM4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여부를 꼽는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HBM4를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해 시장 내 존재감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HBM4에 6세대 10나노급 D램(1c) 공정과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기반 베이스다이 등을 적용했다.

SK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 베이

스다이와 5세대 10나노급 D램(1b) 공

정으로 자금이 유출됐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선은 7만5000달러 선에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험 회피 심리에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자금이 다른 투자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시장 데이터 업체 카이코의 애덤 매카시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본 흐름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재평가하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투자 리서치회사 가베칼리서치의 루이스 게이브 CEO는 “지난 한 해 동안 ‘급성장’이라는 타이틀은 인공지능, 귀 금속, 반도체 관련 자산들이 차지했다”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 상품에서도 디지털자산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굳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HBM은 D램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HBM 비중이 확대될수록 범용 D램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중 효과로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HBM4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이 수입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고환율·코스피 복귀 정책에도… “美 주식 투자는 기본”

“국내 시장(국장) 투자가 요즘 ‘대세’죠. 코스피 5000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주식은 여전히 타이밍 싸움이고, 미국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최근 은행 예금을 깨서 국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환율 고민 없이 달마다 고정적으로 적금처럼 넣는 건 미국 주식이에요.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 ◆ 환율 부담에도 불어난 美 주식투자 248조

30대 직장인 박모씨의 말이다. 이런 인식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 턱 밑까지 치솟았던 고환율 국면에서도 국내 투자 자금의 미국 증시 쏠림이 이어지는 배경을 잘 보여준다. 코스피 5000 선·코스닥 1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 자금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미국 주식과 미국 시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세계 유인에도 ‘K-머니’는 미국을 ‘대체 투자처’가 아닌 ‘기본 투자 포지션’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증시 강세에도 개인투자자 美 ‘기본 투자 포지션’ 인식 구조  
지난달 美 주식 보관액 약 244조

지난 11월 광의통화 평잔 4498조  
자금 종착지, 국내 아닌 해외로

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68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 1451원(1월 30일 기준) 적용 시 약 243.8조원 규모다. 이는 2024년 1월 말 665.8억달러 대비 약 2.5배, 2025년 1월 말 1118.2억달러와 비교해도 약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1700억달러를 넘어선 뒤 연말 차익 실현으로 1600억달러대 초반까지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빠르게 늘었다. 특히 1월 28일에는 174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1~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502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은 36억 2260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 순매수 규모(18억70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국내와 해외로 분화된 채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 넘치는 유동성, 국내를 스쳐 미국으로

이 같은 해외 증시 쏠림의 출발점에는 국내에 쌓여 있는 막대한 유동성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광의통화(M2) 평잔은 449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8.4%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금과 예금뿐 아니라 마니마켓펀드(MMF), 단기 금융상품, 수익증권까지 포함한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특이점은 이 자금이 국내 증시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M2 증가분 가운데 수익증권의 기여도는 3.4%포인트로 전체 증가율의 절반에 달했다. 반면 가계의 정기예·적금은 한 달 새 12조3000억원 감소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예금의 매력에 급격히 떨어지자 자금은 금융시장으로 이동했지만, 그 종착지는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증시로 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일종의 ‘경유지’ 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증시 부양 정책으로 유입된 자금은 코스피 랠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후에는 다시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음에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특히 자금의 이동은 환율 변동성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자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환율이 안정되자 곧바로 매수세가 재개됐다. 외화예금 잔액 역시 지난해 12월 한 달 새 158억8000만달러 증가하며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와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대기 자금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다.

## ◆ 미국은 ‘자산배분’, 한국은 ‘트레이딩’이 된 구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는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상위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대형 기술주와 나스닥 100·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집중돼 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종목에만 수십조원의 자금이 몰려 있으며, QQQ와 S&P500 ETF 역시 상위 보관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정 종목과 지수의 등락이 국내 투자자의 자산 가치에 국내시장의 변동성만큼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투자 방식에서도 국내와 해외 시장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 증시에서는 장기 우상향을 전제로 한 적립식 투자와 장기 보유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단기 매매와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전략 비중이 높고, 변동성 국면에서는 빠른 차익 실현이 반복된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트레이딩 시장, 미국은 자산배분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인식은 세금 통계에서도 확인

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규모는 14조4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미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본격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정부와 연금의 정책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달러 환전 수요가 줄어들며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역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국내시장 복귀계획(RIA)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서학개미의 구조적 이동을 단기간에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증시를 ‘기본 포지션’으로 삼는 자산 배분 구조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단기 세제 혜택이나 환율 안정만으로 투자 행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술주·美 지수추종 ETF 집중  
美, 적립식 투자·장기보유 전략  
국내에는 단기매매·순환매 성격

국민연금, 국내주식·채권 확대  
국내시장 복귀계획 도입 추진도  
단기간에 구조적 이동 어려워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400원대 환율은 어느 정도 고착화 과정에 있다”며 “국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미국 주식을 꾸준히 사는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이 장기 투자처로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실제 투자 행태와 자금 흐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결국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 자산 배분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는 흐름에 가깝다. 초대형 기술주와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구조,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산업 기반은 미국 증시를 ‘베티팅 대상’이 아닌 기본 투자 포지션으로 만들고 있다. 고환율과 정책 변수에도 ‘K-머니’가 미국에 머무는 이유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다주택 양도세 종과유예 연장없다… “무조건 5월 9일 종료”

##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이 대통령 “주가·집값 같은 선상 아냐”  
구윤철 부총리 “3~6개월 잔금 면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유예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는 얘기가 있다”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을 억누른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해당 제도를 4년 넘게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유예 조치)를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불공정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종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9일까지 체결한 계약까지만 유예를

인정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3개월은 부족할 수 있어 마련된 보완 조치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자 종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종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아마 종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종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특위, 오천피 달성에 K자본시장으로 개편

명칭 변경하고 5대 중심 과제 추진  
3차 상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결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돌파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내에서 활동하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에 결의를 다졌다.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칭 변경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선 이제 코스피 5000p를 넘어서 6000, 7000, 8000, 9000, 1만p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피 5000을 이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5대 중

심 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현장 정착 지원 ▲주주환원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 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총회 동의 절차를 가지고 (기업) 압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주 설득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과연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면 (이사가) 주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디스 코드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디스 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중복 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냈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들부터 올해는 풀어가

야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가 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안들에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주가 누르기 방식을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한병도, 野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세 재인상시 車업계 부담 떠안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와 원포인트 개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



설에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

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

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며 지어진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쏟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디스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 “5년간 정보보안에 1100억 투입… 고객 신뢰회복 최우선”

## 2026 카드사 생존전략

### 롯데카드

정보보호센터 대표이사 직속 격상 플랫폼 ‘디지털카’ 필두 고객 확보 3억 달러 ABS 발행 등 자금조달

롯데카드는 올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 중심 경영 전략을 강화하고 본업 경쟁력 강화, 자산건전성 관리, 조달구조 다변화를 중심으로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 새 수장 미정

롯데카드는 올해 신년사 없는 조용한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 12월 조좌진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신임 대표이사 인선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직 차기 대표이



롯데카드 사옥.

/롯데카드

사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롯데카드는 당분간 조 대표의 경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점은 고객 신뢰 회복이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해 11월 CEO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존감 회복과 더불어 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3일 “올해 다양한 사업 전략에 앞서 고객 신뢰 회복이 먼저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정보보호 체계 강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 간 정보 보안 분야에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보보호센터를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격상시켰다. 지난해 9월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 ◆ 디지털카 전략·조달구조 다변화

롯데카드 수익성 제고 방향으로 ▲디지털카 전략 중심 고객 기반 확대 ▲조달구조 다변화 ▲자산건전성 관리 등을 꼽았다. 실제 롯데카드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084억원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롯데카드는 핵심 플랫폼인 ‘디지털카’를 필두로 성장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앞서 조 대표는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카드·제휴사업·디지털카본부를 통합 관리하는 개인고객사업부를 신설하고, 디지털카본부 수장을 교체했다.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카는 롯데카드의 종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카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개편하고 2022년 디지털카 앱 내 ‘모빌리티 서비스’, ‘펄싱’ 등을 오픈하는 등 디지털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경영을 강화해 왔다.

한편, 롯데카드는 자금 조달 구조 다변화 전략도 이어간다. 최근 롯데카드는 3억 달러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이번 ABS 발행은 평균 만기 3년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및 금리 스와프 계약으로 체결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해외 ABS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사무소 오픈… 시공사 총출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사무소 수내동 24번지 일대 6839가구 규모 2028년 이주, 2032년 입주 목표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 일대 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선도지구인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에 재건축 사무실이 문을 열자 주요 건설사와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등 재건축 시장이 들쭉이는 모양새다. 양지마을을 시작으로 분당 내 선도지구 간 사업의 속도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재건축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가운데 공식 사무실을 연 첫 사례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분당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양지마을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과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이재영 경기도의원, 서은경 성남시의원, 서희경 성남시



양지마을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양지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

의원, 이형식 성남시 비서관 등 지역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찾았다. 분당 재건축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물량 제한 등 제도적 변수에 영향을 받은 만큼 향후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이 관건이라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지마을 재건축은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분당 최대 정비사업이다.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고 공원·공공시설·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학원가가 조성된 수내동 학군지 중심에 위치한다.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연결돼 분당 내 재건축 선도지구 중 유일한 역세권으로 교육 환경과 교통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양지마을 재건축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데다, 올해 분당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면서 구역 지정 속도전이 불가피해졌다. 주민대표단은 초립초·분당고와 일부 도로를 제외해 면적을 축소 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27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8년 이주, 203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추진 기대가 곧바로 거레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양지마을 인근공인중개사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은 확산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고 전했다.

수내동의 C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은 재건축 이슈로 분위기 크게 달아오른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입지가 좋은 만큼 관망은 가격대의 매물 위주로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양지마을을 분당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정치인과 행정가 등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양지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선정과 시행규정 마련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을 찾은 재건축 단지 주민은 “학세권·역세권 입지라 살기 좋지만 노후화와 누수로 생활 불편이 컸다”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 지원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신한은행

##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연 6.9% ‘새희망 홀씨’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희망 홀씨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 프로그램’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하위 20% 수준의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신한은행에 보유중인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장기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환 이후 적용 금리는 연 6.9%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제공해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총 6만 5000여명(26년 1월말 기준) 규모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 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서민 대안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를 2026년 1분기 내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연체 이력 중심의 사후 평가에서 벗어나, 대안정보·비연체 기반의 선제적 신용평가 체계로 전환해 저신용 고객의 금융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시적인 신용도 하락이나, 단기 연체 이력만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환능력과 과거 상환 이력 등의 성실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리부담 완화와 상환구조 개선을 함께 제공해 고객의 재기 기반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하나금융 ‘3년간 4조’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 ‘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하나금융그룹이 코스닥·벤처·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직접금융 ▲간접금융 ▲제도적 지원 등이 골자다.

먼저 직접금융 분야에서는 하나증권을 통해 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채권 조달 수단을 다각화한다. 2028년까지 최

대 4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자본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간접금융은 6개 관계사가 공동 출자하는 ‘하나모두 성장K-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매년 1000억 원씩 4년간 출자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총 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별도로 하나증권은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모펀드 결성도 추진한다.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하나는은행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경영지원그룹 소속이던 ‘증권대행부’를 기업그룹으로 재배치했다.

이는 기업금융 전담 직원(RM)들이 현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산업팀을 운영해 코스닥 시장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3일 “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스닥·벤처·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K-기업, 3D·초저전력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뽐낸다

## ISE 2026

삼성전자 미래형 상업공간 비전 제시  
무안경 3D ‘스페이셜 사이너지’ 공개

LG전자 공간에 따른 솔루션 전시  
통합 보안시스템 ‘LG쉴드’ 소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바르셀로나’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너지’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신발, 의류 등 전시 제품이나 제품을 적용한 모델의 정면, 측면, 후면을 아우르는 360도 회전 영상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

또 인공지능(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루션 ‘삼성 VXT(Visual eXperience Transformation)’, 리테일·기업·교육·호텔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군을 폭넓게 선보인다.

전시관 입구에는 별도의 3D 안경 없이도 콘텐츠의 디테일과 3D 입체감을 표현하는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너지’ 3종과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월

리 이페이퍼’ 4종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미래형 상업 공간의 비전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용석우 사장은 “상업 공간에서는 기기와 솔루션을 하나로 연결해 고객에게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솔루션 혁신을 통해 미래형 상업 공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 너머의 솔루션’을 주제로 1184㎡ 규모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은 호텔부터 관제실, 미팅룸, 학습공간, 드라이브루까지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해당 공간의 특성에 맞춘 LG전자의 차별화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과 솔루션을 기업간거래(B2B) 고객에게 제시한다.



LG전자가 ISE 2026에서 B2B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다.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된 서울의 야경. /LG전자

호텔처럼 꾸민 공간에서는 호텔 운영자와 호텔을 찾는 고객 모두를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전시한다. 안정적인 디스플레이

레이 운영과 보안이 중요한 관제실에는 LG전자의 통합 보안시스템 ‘LG 쉴드’도 소개한다.

학습공간에서는 AI 기능을 담은 LG 전자칠판으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드라이브루 존에서는 외부 환경에 맞춰 강한 충격에도 문제없이 작동 가능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보여준다.

LG생활건강 ‘더후’, ‘파리바게뜨’, ‘복순도가’, ‘삼양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K-브랜드와 협업해 전시 공간을 실제 매장처럼 구현하고 자체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영·관리 통합 플랫폼 ‘LG 비즈 니스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대거 선보인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MAGNIT)’ 신제품과 종이처럼 얇고 전력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E-페이퍼’ 등도 공개한다.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 사장은 “제품 경쟁력에 더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역량을 지속 강화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K-방산, 현지생산·산학협력 등 수출모델 진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천무 폴패키지’ 공급 계약

현대로템 폴란드 거점 유럽생산 확대

LIG넥스원 중동기업 파트너십 강화

단순 무기 수출에 머물렀던 K-방산이 현지 생산과 합작법인 설립, 산학 협력까지 아우르는 수출 모델로 진화하며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납기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지 생산·공급망 구축 전략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 A)과 다연장로켓 ‘천무’ 16문과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총 9억 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폴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노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르웨이는 당초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도입을 검토했지만,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을 포함한 공급 전략을 제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최종 선택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실행계약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기업 WB일렉트로닉스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한화-WB 어드밴

스드 시스템(HWB)’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성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폴란드 현지에 구축될 HWB 전용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CGR-080은 폴란드군에 직접 인도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 5조13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 수주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를 거점으로 현지 생산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체결한 K2 전차 180대 공급 2차 계약 물량 가운데 일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돼 납품된다. 폴란드가 잔여 물량 640대를 대상으로 후속 계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올해 말 3차 계약 논의가 구체화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의 국내 생산 요구가 강한 만큼 향후 협상은 현지 조립·생산 비중을 둘러싼 협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루

마니아도 전자 전력 보강을 위해 216대 규모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65억유로(약 11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도 현지화와 전략이 수주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LIG넥스원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통한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약 4조원 규모의 천궁-II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UAE 방산기업 칼리두스그룹과 합작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차기 방공체계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에서는 무기 성능뿐 아니라 현지 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합작 구조와 생산 방식을 설계할 경우 방산 수출의 외연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현대모비스, ‘HWD’ 글로벌 생산 동맹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자이스·생고방 세큐리트 등 협력

현대모비스가 차량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HWD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젝터 설계·생산을 총괄한다. 자이스는 특수필름 설계를 맡아 화면 선명도와 시인성을 극대화하고, 테사가 고기능 필름을 대량 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고방 세큐리트는 필름을 윈드실드 유리라 붙이는 정밀 공정을 담당한다. /양성운 기자 ysw@

HWD는 별도의 물리적 스크린 없이 차량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HWD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젝터 설계·생산을 총괄한다. 자이스는 특수필름 설계를 맡아 화면 선명도와 시인성을 극대화하고, 테사가 고기능 필름을 대량 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고방 세큐리트는 필름을 윈드실드 유리라 붙이는 정밀 공정을 담당한다. /양성운 기자 ysw@

## LG이노텍, 조명 등 유럽车市장 공략 속도

독일서 ‘넥슬라이드’ 신제품 공개

LG이노텍이 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차조명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LG이노텍은 드라이빙 비전뉴스(DVN)가 주관하는 ‘제39회 라이팅 위크숍’에 참가해 차량조명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위크숍 기간 동안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최신 ‘넥슬라이드’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실리콘 기반 초경량 소재를 적용해 얇고 가벼운

범퍼 및 그릴용 조명에 최적화된 ‘넥슬라이드 에어’, 라이팅 픽셀의 크기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준인 2mm×2mm로 줄여 해상도를 대폭 개선한 ‘넥슬라이드 픽셀’ 등이 대표적이다.

LG이노텍은 ‘DVN 라이팅 위크숍’ 이후 유럽 주요 OEM 고객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연계, 유럽 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차량 조명 사업을 조 단위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 삼성전자

美 ‘AHR 엑스포’ 전시

‘더 나은 일상의 구현’ 주제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에 특화된 공조 제품과 AI 기반의 통합 기기 관리 기능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350㎡(약 10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은 일상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가정용부터 상업용 공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공조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주요 전시 제품은 ▲하이렉스 R454 B’ 실외기 ▲가정용 EHS 제품 ‘모노 R 32’ 라인업 ▲대용량 시스템에어컨 ‘DV M S2+’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등이다. /차현정 기자

### 한화비전

ISO·IEC 42001 인증

한화비전이 AI 경영시스템(AIMS)을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화비전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AI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활용하는 조직이 AI 시스템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요구사항을 수립·운영하도록 지원한다.

한화비전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EU 등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 한화시스템, 단기 수익성 둔화 회사채로 재무운용 여력 확보

필리조전소 조기 생산 안정화 과정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 683억 회사채 최대 4000억 규모 발행 검토 방산 중심 본업 경쟁력은 유지 중

필리조전소 인수 이후 생산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한화시스템 실적에 반영되며 단기 수익성이 둔화됐다. 방산 주주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는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며 재무 운용 여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30일 증권신고서를 통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전소의 조기 생산 안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 인력 파견, 공정 병목 해소, 설비 확충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 683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의 지난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한화해운 지분 25%를 확보했고,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 Limited) 지분 19.9%에 대해서도 직·간접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룹 차원의 신사업 투자와 인수 참여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화시스템은 지난 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며, 발행 규모는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발행일은 오는 11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행을 두고 필리조전소 정상화비용과 투자 집행이 겹친 국면에서 자금 운용 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전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한화오션

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방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본업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화시스템은 방산·ICT·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방산품 제조·판매가 주력 사업이다.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23년 985억원에서 2024년 1412억원, 2025년 1526억원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방위력 증강 기조와 글로벌 무기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방산 부문 주주 기반도 유지되고 있다.

레이다·전술통신·지휘통제체계 등 방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블록-III 체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다기능레이다(MFR) 시제 개발 계약(2006억원·2030년 6월까지)을 체결하며 국내 사업 기반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L-SAM 다기능레이다와 이라크항 천궁-II MFR 수출 계약을 동시에 확보하며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쌓았다. 또 독일 딜리펜스와 협력해 IRIS-T SL M 체계에 MFR을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유럽 방공망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ICT 부문은 클라우드 전환·운영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 발행은 단기 대응보다는 필리조전소 정상화 비용과 오스탈·한화해운 등 투자 집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필리조전소의 흑자 전환 시점은 아직 특정하기 어렵지만 중장기 개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 중소벤처, ‘신산업 진입장벽 해소’ 등 건의

중소 오찬간담회·K-국정설명회  
김민석 총리 등 총 40여명 참석  
중기중앙회 “필요사항 정부에 건의”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신산업 진입 장벽 해소,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시장 조성,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등을 건의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 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가 열렸다.

당초 만남만 예정하고 날짜를 잡지 못했던 이날 행사는 고 이혜찬 총리 장례가 끝나면서 이날로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김 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회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 성과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K자’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오늘 정부가 ‘모두의 성장’을 중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3일 서울 종로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심으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중소기업계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정 성과가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까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집행 방식을 점검하겠다”며 “경제, 외교, 사회 등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경제인들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1년에 한번하고 마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고, 점검하고, 분과별로 하고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직역갈등, 규제샌드박스) ▲기술

탈취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제값받기 문화 확산(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대·중소기업 공급망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 ▲금융 등 뿌리업종 특화 AX 지원 ▲대기업-스타트업 간 신뢰기반 협력구조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DX·AX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부에선 김 총리 외에도 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을 포함해 중기중앙회 부회장 20명 그리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기부, ‘연구인력 지원사업’ 지방 중소기업 우대

지방 중소기업에 선정인력 60% 할당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60%를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제조AI 중소기업 채용 지원도 늘린다.

중기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 시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석사급 신진연구인력(만 39세 이하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7년 이내)의 경우 1년차 연봉이 4100만원이라면 정부가 이 가운데 40%인 2000만원을 R&D 비로 지원한다. 특히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 지원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늘려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 파견도 지원한다. 파견한 연구인력은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기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에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11개 파견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파견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 혁신센터 4곳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매칭인력의 인턴과정(2~4개월) 및 채용 확정 인력에 대한 R&D 프로젝트(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립창원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호서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전북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는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있는 제조AI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양성된 인력을 해당 중소기업 채용에 연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현대제철, 고로보다 탄소배출 줄인 강판 양산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가동

현대제철이 고로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을 20% 줄인 ‘탄소저감 강판’ 양산에 돌입했다. 전기로와 고로 쇳물을 배합하는 복합프로세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 가동하며 자동차강판 공급을 시작으로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가동에 앞서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검증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고객사 평가와 강종 승인 절차를 병

행해 양산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양산을 시작한 탄소저감 강판 2종을 포함해 총 25종의 강종 인증을 완료했으며, 연내 28종을 추가해 인증 범위를 총 53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탄소저감 제품 양산 체제 도입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탄소저감 로드맵에 선제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탄소저감 철강재를 국내 및 유럽 생산 차종에 일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해당 공장에 공급되는 주요 자동차강판을 탄소저감 제품으로 공급하고, 향후 적용 강종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LX하우시스 “올해 인테리어 키워드 ‘숨’”

‘트렌드십 세미나’ 열고 컨셉 제안

LX하우시스가 올해 인테리어 디자인 키워드로 ‘숨(Breathe)’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삶의 균형을 되찾길 원하는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면서다.

LX하우시스는 지난달 30일 건설사·설계사 등 B2B 고객과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트렌드십(TRENDSHIP) 세미나’를 열고 올해의 디자인 컨셉과 방향성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LX하우시스가 제안한 올해 디자인 키워드 ‘숨(Breathe)’은 AI시대를 맞아 디자이너와 기술이 협력해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는 방식에서 출발했다. 인공지능(AI) 대중화에 따른 산업 재편 등 급



LX하우시스는 지난달 30일 ‘2026 트렌드십(TRENDSHIP) 세미나’를 열고 올해 인테리어 디자인 키워드로 ‘숨(Breathe)’을 제시했다.

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흐름을 담았으며, 가빠진 호흡을 조절하듯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시대적 감각을 한국적 정서의 공간 언어로 풀어냈다. /김승호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하트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갈래야 갈 수 없는 무적의 치킨버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네카오, 광고·커머스 역대급 실적 예고… 다음은 AI 쟁탈전

네이버 연매출 12조 카카오 8조 예상  
광고주 집행 심리 살아나며 거래 재편  
AI 활용 전략 따라 올해 실적 판가름

네이버와 카카오가 광고·커머스(상거래) 회복을 앞세워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예고한 가운데, 양사는 다음 승부처로 인공지능(AI) 분야를 꼽고 수익화 경쟁에 본격 착수한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플랫폼 양강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나란히 최대 실적 경신을 예고하고 있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이 동시에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네이버는 연매출 12조원, 카카오는 8조원 달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확보한 실적 체력을 바탕으로, 다음 성장 동력으로 AI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실적 개선은 검색 광고와 커머스의 안정적인 성장에서 비롯됐다. 검색 광고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고, 스마트스토어와 브랜드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커머스 거래액도 회복세를



카카오와 네이버 전경.

/각사

보이고 있다. 특히 검색과 쇼핑 데이터를 결합한 광고 상품이 중소상공인과 브랜드 광고주를 동시에 흡수하며 매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광고 효율 개선을 통해 단가와 집행 규모를 동시에 끌어올린 점도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카카오 역시 광고·커머스 부문에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톡 기반 광고 상품은 특채널과 메시지형 광고를 중심으로 다시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등 커머스 서비스도 거래액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면서 수익 구조가

단순해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본연의 광고와 커머스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양사의 실적 개선이 일회성 반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고주들의 집행 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고, 커머스 역시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가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과 메신저라는 핵심 트래픽을 기반으로 광고와 커머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양사의 공통된 다음 카드는 'AI'다. 다만 과거처럼 기술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전략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네이버는 검색, 쇼핑, 광고 전반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이용자 체류 시간과 구매 전환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AI 검색과 추천 고도화를 통해 광고 효율을 높이고, 커머스 거래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대화형 서비스와 콘텐츠 추천, 광고 운영 효율 개선에 AI를 결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라는

일상형 플랫폼에 AI를 자연스럽게 녹여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이를 광고와 커머스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AI를 통해 광고 타겟팅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실적이 양사의 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AI 투자가 비용 부담으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광고 단가와 커머스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광고와 커머스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구조를 확보했다"며 "AI는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기보다 기존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네카오'의 경쟁은 이용자 수가 아니라, 누가 AI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느냐의 싸움"이라며 "올해 실적은 AI 전략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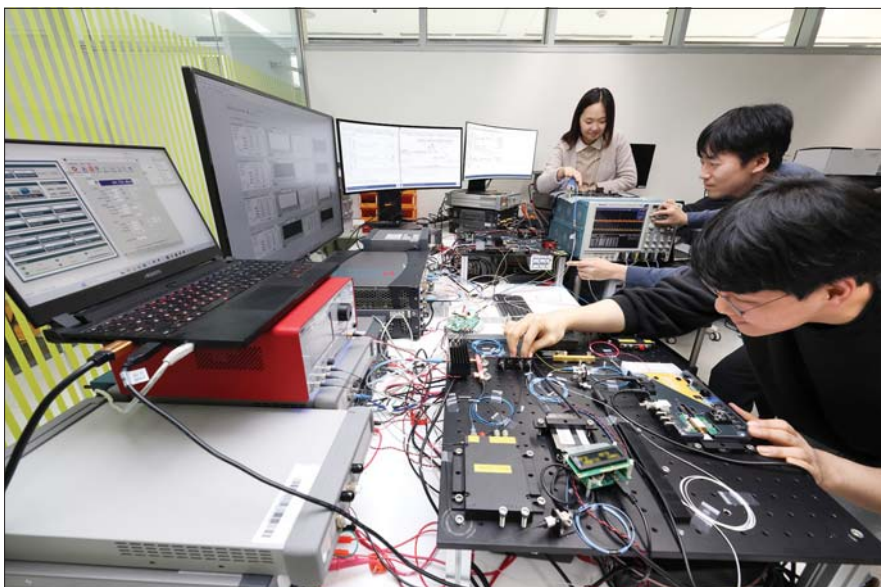
## KT, 초당 30만개 암호키 분배 장비 개발

복제 불가능해 도청 원천 차단  
1년 반 만에 성능 2배 이상 향상

KT는 1초당 30만개 수준의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는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복제가 불가능해, 물리적 회선에 대한 도청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KT는 2024년 1초당 15만개 암호키 생성 속도의 장비를 선보인 데 이어, 약 1년 반 만에 성능을 두 배 이상 향상시켰다. 이번 장비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양자 암호키 분배 시스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이며, 글로벌 주요 제조사들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망에 적용할 경우 1분당 7만대 이상의 암호 장비에 양자 암호키를 공급할 수 있다.

양자 암호키 분배 시스템은 단일 광자를 이용하는 특성상 빛의 분산이나 산란이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쉽게 붕



KT 직원들이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

/KT

괴될 수 있다. KT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류를 줄이는 필터와 시스템을 개발해 암호키 생성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였다.

KT는 해당 기술에 대해 지난해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했으며, 고려대학교 통신 및 정보시스템 연구진과도 공동 검증을 실시했다. 오류 저감 필터와 시스템은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인 양자인터넷 기술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seoh@

## SKT, 해외여행 고객에게 하나머니 쏜다

하나카드 '트래블GO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결제시 2만원 제공

SK텔레콤은 하나카드와 제휴해 T로밍과 '트래블GO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바로(baro)'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해외에서 하나카드 '트래블GO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머니 2만 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혜택은 1인 1회에 한해 지급되며, 프로모션은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트래블GO 체크카드'는 여행 특화 체크카드로,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환전과 해외 결제가 가능하다. 프로모션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T월드 또는 하나페이 앱 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응모한 뒤, 해외에서 바로 요금제를 이용하며 결제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실적은 이벤트 페이지 내 'T로밍 미션'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산정된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여행객의 경우 바로 요금제에 추가 요금을 더해 여러 명이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가족로밍'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바로 요금제 이용 고객을 위한 부가 혜택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내 와이파이 할인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3월 말까지 연장 제공하며, T멤버십 앱의 '클럽T로밍'을 통해 공항, 현지, 귀국 이후까지 연계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 '오케스트레이션 벤치마크' 논문 글로벌 학회 채택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업 확대  
서비스 환경서 AI 활용도 높여

카카오가 자체 AI 운영 역량을 학계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오케스트레이션 능력 평가 벤치마크 관련 논문이 국제 인공지능 학술대회 'ICLR 2026'에 채택됐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단일 모델 성능을 넘어, 여러 LLM을 조합해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벤치마크를 깃허브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회사는 이번 연구 성과 공개를 통해 AI 기술 검증의 표준화와 개발자 커뮤

니티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AI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AI 경쟁력은 모델 자체뿐 아니라 운영과 조합 능력에서 갈린다"며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 재개… 공정성 확보

외부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 구성

네이버가 한동안 중단됐던 뉴스 제휴 평가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3일 뉴스 제휴 평가 재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평가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단돼 왔던 뉴스 제휴 평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구성 이후 평가 기준과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 제휴 평가는 네이버 뉴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 재개 여부와 기준 변화에 언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 정은보 이사장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

〈한국거래소〉

## 거래소 ‘코스피 5000’ 세미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과제 제시  
반도체 중심 양극화 경계 진단  
정 이사장 “프리미엄 시장 도약”

‘오천피’(코스피 5000)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연속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수 상승의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양극화 문제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KOSPI 5000 and Beyond)’에서 “자본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75.6%라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국 중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도 역사적인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5000을 다시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다”며 “우연이 아닌 범정부적으로 주주 가치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밸류업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는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역할 강화 ▲글로벌 경쟁력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기념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덕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국정무위원회 여당간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하은 기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부실 기업 퇴출 요건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모험 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하고, 시장 구조 개편과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거래 시간 연장과 청산·결제 주기 단축 등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가 조작 세력이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력히 전했다. 근본적으로 부당이득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부당 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부연이다.

### ◆ “한국증시 여전히 저평가”

이날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의 자본시장 과제에 대해 짚었다.

조 센터장은 ‘코스피 5000시대, 안착 및 도약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이익 성장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중심의 이익 성장,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이 유동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조 센터장은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73%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올 것이고, AI 적용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지수 상승과 체감 경기 사이의 온도 차이는 구조적 양극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중심의 양극화 현상은 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는 “AI 버블 우려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투자 비중은 인터넷 사이클 대비 낮은 규모”라며 “2028년까지는 공급 부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센터장은 ‘주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코스피 5000 돌파의 주인공을 반도체로 보는 시각이 동일했

으며, 체감 경기와 주식시장의 괴리, 고속의 양극화 현상을 짚었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을 ‘버블’로 인식하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센터장은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은 10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최근 상승은 2023~2024년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이같은 현상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독일의 GDP는 역성장인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속에서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센터장 모두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조 센터장은 “여전히 신흥국 평균 대비 25%가량 할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등 주요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코스피 5000 이후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삼성증권, 아폴로 업무협약…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통해 경쟁력 강화  
박종문 사장 “수준높은 상품 선보일 것”

삼성증권이 차별화된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지난 2일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 경



(왼쪽부터)박종문 삼성증권 사장과 아폴로 존 지토(John Zito)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

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아폴로의 독보적인 글로벌 크레딧 및 사모주식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로, 삼성증권 고객 대상 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아폴로의 글로벌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모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폴로는 투자등급부터 하이일드에 이르는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주식,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 전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운용사다. 전 세계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교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을 갖춘 아폴로와의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대체투자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우량 운용사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체투자 상품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존 지토(John Zito) 아폴로 공동대표는 “한국 시장에서 탄탄한 고객 기반을 보유한 삼성증권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아폴로의 원칙 중심 투자 철학과 삼성증권의 전문성이 결합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프라이빗 마켓의 새로운 투자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상장협, ‘상법개정안 찬성 의견서’ 국회 제출

“경제유물 개선할 필요 있어”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한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정부가 작년 말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자율을 기준금리와 시장이자율, 물가 상승률, 그밖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협은 “시장금리 변동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제유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대의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60년이 넘는 경제유물을 방치하면서 2020년 이후 시장금리에 비해 상사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 괴리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채

권자 입장에서 채무이행보다 지연손해금 발생을 선호하게 되고, 반대로 법정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다면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지체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장협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제도 악용 소지가 줄면서 기업 재편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미 주요국은 변동이자율제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 신한투자증권 IRP 원리금비보장형 3년·5년 수익률 1위

신한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3년, 5년 수익률 증권업계 1위를 차지했다.

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현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4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증권업 사업자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3년 수익률 16.73% 및 5년 수익률 7.19%로 각각 증권업계 최상위권에 올랐다.

IRP 1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5년 3분기말 기준 18.59%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4분기말에는 20.98%로 2위를 기록하는 등 2개분기 연속 증권업계 상위권을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연금자산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성과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를 통해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 성향을 종합 분석한 맞춤형 일대일 대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MP(모델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카드뉴스’, ‘AI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가입자가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 가고 있다.

정용욱 신한Premier총괄 사장은 “단순히 상품을 제안에 그치지 않고, 노후 자산을 함께 키워 나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핵심가치”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저출생, 생애주기 통합설계 필요”

권익위, 56만건 민원데이터 분석  
국민 생활 전반 정책과 밀접 연결  
특정 생애단계·개별정책으로 어려워

저출생 문제는 출산·양육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현행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점검했다.

분석 대상은 임신·출산·양육·교육을 키워드로 추출한 민원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이다. 그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과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요구가 컸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의 개선 필

요성이 두드러졌다.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등 고용·노동 환경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특정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과 개선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로,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산업부, 기존 ‘관세 대응 119’ 개편  
관세·비관세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미국의 관세·원산지 검증 강화와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겹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대응 창구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 대응 119’는 2025년 2월 출범 이후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를 확인, FTA 적용 여부 검토,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 밀착 지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실제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규제 강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확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상담 범위를 대폭 확대한 ‘무역장벽 119’를 통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의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무역장벽 이슈를 정리한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운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관세 대응 119 참여 기관에 더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범정부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장벽 119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外人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

해수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 대한 설명회로 이해 도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이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수협·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상의 임금 지급을 비롯해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기후부, 지능형전력망 미래 기술 선포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관련 전력 기술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 전시회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해 전기의 생산·저장·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직류(DC)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다.

특별전시관 3곳을 구성해 지능형전력망 기술력을 대외에 홍보할 계획이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일렉스 코리아’ /뉴시스

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 ▲분산에너지 산업전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산업전이다.

먼저 ESS 산업전에서는 화학적 안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의 ESS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변속 양수·모듈식 양수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기술을 선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항공권 수수료 확인  
택배 파손, 건강식품 상술 주의 당부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거래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3대 품목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비중은 각각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7437건 중 절반 이상(58.3%)은 계약해제·취소수수료 분쟁이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



설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둔 3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거나 상인들이 선물용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 /뉴시스

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환급 지연, 운항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여행을 통해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 후 3개월 넘게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택배는 명절 물량 급증에 따른 파손·분실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3년간 택배

피해구제 1022건 중 ‘파손·훼손’이 43.8%, ‘분실’이 33.1%를 차지했다. 신선식품이 오배송돼 변질됐음에도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을 내세운 상술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구제 사유의 42.3%가 계약해제·청약철회 분쟁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전체의 33.2%에 달했다.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식품부-aT,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설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실시  
인당 최대 10만원 상품권 3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15일까지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aT에 따르면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의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인 7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올해 발행되는 농할상품권은 전국 17개 지역별 상품권으로 지난 2일 순차적 발행을 개시했다.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가맹점 정보는 ‘제로페이맵’ 앱을 통해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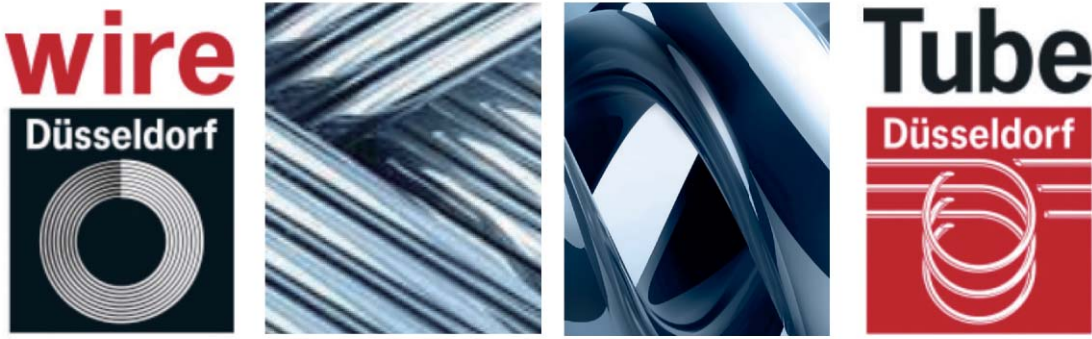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65세 이상 회원의 구매편의를 고려해 우선 구매 기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진행한다. 65세 이상 구매는 2~8일 기간 진행되며, 출생연도 1961년 이전(1961년 포함)인 회원은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 이후 전 연령대의 구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출생 연도와 지역별 판매 규모를 고르게 분배해 다양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비플레이 등 17개 앱 중 하나를 다운받아 앱 내에서 지방정부별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설맞이 발행 취지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기간 내 빠른 사용이 필요하며 타인에게 선물은 불가하다. 지방정부별 구매 개시 일자는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COME&CONNECT

##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 시찰단 모집

- 만데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꿰뚫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 ~ 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광머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돔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변화한 자일거리 - 뢰머광장과 박물관 지구에 있는 철조 소제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구시-경북도, 與野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건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 아닌 국가 균형발전 이끄는 핵심 축 권한 이양·재정 자율성 확보”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방문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치권과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

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시행의무를 특별법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공식 동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본격적인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주군

#### 군립병원 공식명칭 지정

울주군은 상반기 개원을 앞둔 군립병원의 공식 명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2년부터 군립병원 건립을 진행해 왔다. 온양읍에 들어서는 이 병원은 55병상 규모로 응급실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다.

응급의학과·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과·가정의학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가 운영된다.

병원 명칭은 공공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 의견을 폭넓게 모았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고흥군

#### 저공해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

고흥군은 기후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3일부터 2026년도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민간 보급사업 상반기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군은 금년에 1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기 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 승용차 2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년 이상 보유한 본인 명의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구매자에 대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신설돼 전기자동차 구매 유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 김해시

####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김해시는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수상 정책은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김해형 탈플라스틱’이다. 이번 정책대상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는 상으로, 정책 형성부터 집행, 성과까지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 체감형 과제로 삼고, 명절 성묘 문화의 플라스틱 조화와 장례식장 일회용품, 폐현수막 등 일상 현장에서 감축-대체-순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실천형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포항시

#### 시민안전보험 갱신·보장 확대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 충남도, 천안아산 ‘K-팝 돔구장’ 추진 ‘양산형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 본격화

###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TF’ 첫회의 2031년까지 1조 투입, 5만석 조성 프로야구·공연 등 행사 유치 예정

충남 천안아산 ‘K-팝 돔구장’ 건립 추진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남도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 형식 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도와 천안·아산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돔구장 건립을 공식 발표한 이후 2개월여 만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추진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KTX 천안아산역 인근 도보 10~20분 거리 약 20만㎡ 부지에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5만 석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돔구장에서는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을 비롯해 축구·아이스링크 경기와 연 150~200일 규모의 K-팝 공연·전시, 대기업 행사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돔구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환승 복합센터도 함께 추진한다.

광역환승복합센터는 충청권 교통허브 조성과 광역 환승 체계 고도화,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24시간 응급진료 안정적 수행 지역 환자 중심 운영 유지 목표

양산시는 2026년 2월부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양산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형 제도의 상급병원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에서 경남,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가 선정됐다. 경남은 양산부산대학교병

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보다 2차 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난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응급·입원·야간 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시는 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병원이 24시간 응급 진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환자 중심 운영 체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양산(경남)=장선호 기자 metrobusan2601@

## 광주시, 시민 주도 ‘에너지 분권 실현’ 나서

올해 총 103억 예산 투입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공유하며 마을 단위의 자립을 이끄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본격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운영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 강화 ▲주택 햇빛발전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 직접 확대’와 ‘체감형 보급’에 두고 올해 총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먼저 4억 70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공동주택 150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햇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울진군, 지난해 관광객 890만명 유치

전년비 8%↑... 평균체류시간도 상회

울진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광객 890만 명을 유치하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냈다. 평균 체류시간과 숙박률, 관광소비액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표를 기록했다.

군은 2025년 연간 방문객이 총 890만 39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데이터에 신용카드 소비 분석을 결합해 도출됐다. 평균 체류시



울진역 플랫폼에서 관광객들이 열차 탑승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간은 1801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1021분을 크게 상회했으며, 1박 이상 숙박자 비율은 20.4%로 전국 평균인 7.1%의 세 배에 달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유통업계, 생리대 부담 던다… ‘PB·1+1’ 등 초저가 경쟁

정부 물가안정 기조 적극 대응  
주요기업 중저가 제품군 확대  
구조적 가격인하 지속 전망

“해외보다 40%나 비싼 이유가 뭐니까. 생산 원가가 아니라 과도한 유통 마진 때문 아닙니까?”

지난달 20일과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자 유통업계가 가격 다이어트에 나섰다. 주요 제조사가 중저가 제품군을 확대하는가 하면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이 앞다퉀 생리대 관련 프로모션과 PB 상품 할인 및 제작에 돌입했다.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국내 주요 생리대 3사는 즉각 중저가 제품군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생리대 제품군 할인에 나섰다. 쿠팡의 PB 회사인 씨피엘비(CPLB)는 지난 1일부터 자체 브랜드 ‘루나미’ 생리대 가격을 최대 29% 인하해 개당 99원(중형 기준)에 선보이고



이마트24는 2월 1달 간 생리대 1+1 및 투스페이와 함께하는 할인 행사를 펼친다. /이마트24

있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다. 가격 인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쿠팡 루나미 생리대 주문량은 평소 대비 최대 50배까지 치솟으며, 준비했던 약 50일 치 재고 물량이 단 이틀 만에 전량 소진되는 품절 대란이 빚어졌다. 쿠팡 측은 “생리대 가격 인하를 통해 가성비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고객 부담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대규모 생리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인기 생리대 상품에 대해 1+1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투스페이머니지로 결제 시 20% 추가 할인까지 더해 체감 가격을 대폭 낮췄다.

이마트는 자체 PB ‘노브랜드’를 통해 시중 대비 30%가량 저렴한 ‘자연순면 생리대’를 선보이고 있다. 제조사 직거래로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과감히 견어내 중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의 PB 상품인 루나미 소프트 국내산 중형 생리대 날개형 모습. /쿠팡

형 기준 개당 118원, 대형 기준 135원이라는 초저가를 구현했다. 가격 경쟁력의 비결은 유통 단계 축소에 있다. 이마트는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 중간 도매 및 물류 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을 없애고, 광고비 등 불필요한 제반 비용을 과감히 덜어내 소비자 판매가를 낮췄다.

저가형이지만 품질에서도 차별화를 뒀다. 이마트 측은 “일반 부직포를 주로 사용하는 타사 저가형 PB 제품과 달리,

노브랜드 자연순면 생리대는 면섬유가 함유된 ‘순면 부직포’를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용품 행사를 통해 고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B 생리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롯데마트와 컬리는 현재로서는 PB 상품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CU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가성비를 앞세운 ‘실속형 생리대’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단계에 있다. 2월 한 달간 주요 생리대 상품에 대해선 1+1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 잡기에 동참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유통 구조를 꼭 짚어 비판한 만큼 유통사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 PB 상품 확대나 유통 단계 축소 등 구조적인 가격 인하 노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탈팡’ 이커머스시장 지각변동… 네이버 급부상

C커머스 등 개인정보 유출 영향  
네이버, 두 달 연속 MAU 급증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여파가 실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쿠팡의 사용자 수가 새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경쟁자인 네이버는 무서운 기세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2달 연속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10% 이상 증가했다.

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2026년 1월 종합 물 앱 사용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앱 사용자 수는 3318만8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428만764명) 대비 약 110만명(3.2%)이 줄어든 수치다.

쿠팡은 지난 12월에도 전월 대비 0.3%의 사용자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2달 연속 MAU가 감소폭을 보인 것은 최근 확산된 불매 여론이 실제 앱 이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논란으로 돌아선 민심이 탈(脫)팡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이 주춤한 사이, 그 빈자리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채우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1월 사용자 수는 709만662명으로 전월 대비 10% 늘었다.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MAU가 11.5% 증가한 데 이어, 1월에도 10%대 고성장을 이어가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쿠팡에서 이탈한

소비자들이 혜택이 강화된 네이버 멤버십과 도착보장 서비스 등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앱 순위도 뒤집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1월 사용자 수에서 종합물 앱 순위 5위로 올라섰다. 네이버가 쿠팡, 알리리를 이을 이커머스 빅3로 파고드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역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12월 MAU가 전월 대비 11.1% 감소하며 881만5888명으로 줄어들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0.5% 상승에 그치며 797만4535명을 기록했다. 테무는 1월 사용자 수 역시 전월 대비 각각 1.3%, 0.3%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롯데백화점, 본점 외국인 매출 40% ‘썩춤’

멤버십 카드 등 차별화 콘텐츠 성과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본점의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40% 신장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연 매출 2조원이 넘는 대형 점포로서는 이례적인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시한 외국인 전용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 카드’가 출시 두 달 만에 발급 건수 2만5천건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카드는 백화점 5% 할인을 비롯해 면세점, 마트, 편의점 등 롯데 계열사 할인 혜택과 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해 외국인 쇼핑객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한국 전통 자개 문양을 입힌 카드 디자인은 중국 SNS 등에서 ‘K-굿즈’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고객 국적도 다양해졌다. 과거 중국인 중심이던 것과 달리 지난해 미국·유럽 고객 비중은 14%, 동남아 고객은 15%로 크게 늘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본점



외국인 고객들이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는 모습. /롯데백화점

전 매장에 400여 대의 ‘즉시 환금기’를 설치해 결제 후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K-패션 전문가 ‘키네틱 그라운드’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한 전략도 주효했다. 강우진 롯데백화점 본점장은 “명동 상권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서 쇼핑을 넘어 K-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쇼핑 타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멜라메이트 팝업스토어 제품 라인업. /CJ웰케어가

## CJ웰케어가 ‘멜라메이트’ 팝업 운영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가 이달부터 울리브영 강남타운에서 식물성 멜라토닌 브랜드 ‘멜라메이트’ 단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내부는 실제 침대를 배치한 체험 공간과 보라색 조명을 활용한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CJ웰케어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멜라메이트로 유수가 구미 신제품을 포함한 브랜드 라인업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 쿠팡, 지난해 농수산물 9400t 매입

전년 대비 28% ↑… 역대 최대

쿠팡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방 농어촌에서 매입한 과일과 수산물 규모가 9400톤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4년(7370톤)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한 농수산물은 사과·복숭아 등 과일 30여 종(7550톤)과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30여 종(1870톤)에 달한다. 특히 쿠팡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판로를 적극적으로 넓혔다.

실제 경북 고령(수박·멜론), 영천(사인머스켓), 전남 영암(무화과) 등지에서는 전년 대비 매입량이 2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산물 역시 지난해 7월 론칭한 ‘제주 갈치 항공

직송’ 서비스를 통해 폭염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90톤을 직매입하는 등 남해와 제주 일대 어가에 힘을 보탰다.

쿠팡의 산지직송 시스템은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농어촌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는 주문 다음 날 오전 7시 전에 신선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쿠팡은 올해도 지역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과일 매입지는 전북 남원, 경남 밀양, 충남 홍성 등으로 넓히고, 수산물은 동해안 일대까지 신규 산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극심한 기후 변동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신규 품목과 산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GS25, ‘흑백요리사’ 간편식 순차 출시

우승자 최강록 셰프 등 참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넷플릭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달 4일부터 출연 셰프들과 협업한 간편식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예약조차 힘든 인기 셰프들의 메뉴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협업에는 우승자 최강록 셰프를 필두로 ‘서울엄마’ 우정국, ‘코자차’ 최유강 등 화제의 셰프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강록 셰프의 ‘날치알명란&계란주먹밥’은 구운 명란과 와사비마요, 일본식

계란말이를 조합해 셰프 특유의 조림 스타일을 구현했다. 우정국 셰프의 ‘소불고기김밥’은 고기 토픽 양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려 풍성한 맛을 살렸으며, 최유강 셰프는 랍스터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내놓으며 편의점 간편식의 고급화를 꾀했다.

GS리테일 이정표 마케팅부장은 “흑수저, 백수저 셰프들의 개성을 GS 25만의 메뉴로 재해석했다”며 “콘텐츠와 리테일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선택과 집중’ 나선 K-건기식 ODM, 글로벌 플랫폼 도약

콜마, 화장품 축소해 체질 개선 코스맥스, 시장별 전략 차별화 노바렉스, 오송2공장 생산 증설

국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들이 내수 경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 콜마그룹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재정비에 돌입했으며 코스맥스, 노바렉스 등도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3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콜마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화장품 부문은 축소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문을 강화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최근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도소매 관련 계열사인 콜마스크, 에치엔지 등을 매각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해외 ODM 수주 확대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해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518억원,



콜마비엔에이치 음성사업장과 노바렉스의 '오송2공장' 조감도.

영업이익은 139% 급증한 97억원을 올렸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수출은 34% 커졌다.

콜마비엔에이치 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내수는 부진했으나 비(非) 중국권 시장의 탄력적인 성장세와 주요 글로벌 거래선 확대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콜마그룹은 그룹 핵심 성장 축인 화장품 사업은 한국콜마가, 건강기능식품은 콜마비엔에이치가 각각 전담함으로써 향후 그룹 전체의 사업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스맥스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회사 코스맥스엔비티는 한국, 중국, 미국, 호주 등 4개 국가에서 수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전체 실적의 65%를 해외에서 거뒀다.

다만 한국법인을 비롯해 호주법인, 미국법인 등이 모두 실적 부진을 겪어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135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 특히 지난해 3분기만 살펴보면, 역성장 폭은 더 크다. 3분기 매출만 6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



/각사 제공

이에 비해 코스맥스그룹 내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사업 회사 코스맥스바이오만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42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중국 매출은 107% 커진 42억원이다.

코스맥스그룹 측은 “코스맥스바이오는 중국 현지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 품목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며 “각 시장 전략을 차별화해 K-건기식 입지와 ODM 산업 규모를 지속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ODM·OEM 전문기업 노바렉스도 글로벌 물량 확대에 선제적

으로 대비하며 국내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노바렉스는 올해 오송2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오창1공장에서는 유산균 전용 설비를 재단장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청주시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오송2공장 증설과 오창공장 재단장으로 노바렉스는 8천억원~1조원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된다. 또 고부가가치 제형 기술력과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기준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노바렉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36% 늘어 4043억원, 영업이익은 86% 증가한 431억원이다. 이러한 호 실적에는 수출 확대가 뒷받침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수출액은 1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노바렉스 측은 “글로벌 수요 흐름에 따라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청주 지역을 거점으로 생산 안정성과 유연성을 갖춘 핵심 기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장 오가노이드 치료 기술 유럽 특허 등록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재생효과 더해 다양한 장 질환 적용해 활용가치 높아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 핵심 기술이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개발 시 피해 가기 어려운 강력한 ‘원전특허’로, 한국, 미국, 일본에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독점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 결정된 기술은 염증을 억제하는 기존 생물학적 제제(TNF  $\alpha$  억제제)에 장 오가노이드를 함께 적용하는 치료 전략이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에 더해 손상된 장 조직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재생의 개념’을 더한 방식이다. 기존 치료가

염증 조절에 집중했다면, 이번 기술은 염증으로 인해 무너진 장 점막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약물 치료로 증상이 조절돼 관해(Remission)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장 점막의 깊은 궤양이나 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재발 위험이 높았던 난치성 환자군에서 장 조직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겪어온 ‘증상은 조절되지만 장은 낫지 않는’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치료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 기술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뿐 아니라 방사선 대장염, 허혈성 대장염 등 다양한 장 질환으로 확장 가능하다. 특정 제조 공정이나 세포 유래에 국한

되지 않는 폭넓은 장 오가노이드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관계자는 “기존 생물학적 제제 사용 시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병행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됨을 확인한 만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두 약제의 병용 처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특허는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개발 시 피해 가기 어려운 강력한 ‘원전특허’로서의 가치를 지닐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특허는 유럽 통합특허(Unitary Patent) 제도를 통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18개국에서 보호되며, 특허 존속기간은 2042년까지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유럽 점유율 확대

신규 제품 수주로 실적 기대감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암 질환 치료제들이 유럽에서 안정적인 처방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출시된 고수의 신규 제품들의 수주 성과가 더해지며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제품군(IV-SC)은 2025년 3분기 기준 유럽에서 약 68%의 합산 점유율을 기록했다. 프랑스 81%, 영국 84%, 독일 74% 등 주요 5개국(EU5)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

특히, 세계 유일 인플릭시맵 피하주

사제형 치료제 ‘램시마SC’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램시마SC는 유럽에서 직전 분기 대비 2%p 오른 2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출시된 인플릭시맵 제품 중 가장 많은 처방량을 기록했는데, 유럽 주요국에 속하는 독일(48%)을 비롯해 핀란드(58%), 불가리아(56%), 크로아티아(43%), 체코(42%) 등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유플라이마’도 같은 기간 유럽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해 처방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총 9개 아달리루맵 제품이 출시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유플라이마는 이탈리아 53%, 영국 42% 등 유럽 주요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 SK케미칼, 경남제약과 비염 치료제 판매

약국 유통·영업 강화

SK케미칼이 일반의약품(OTC) 사업 영역에서 타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약국 영업력을 강화한다.

SK케미칼은 경남제약과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노즈알엔질캡슐(사진)’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경남제약은 기존 SK케미칼이 의약품 주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던 노즈알에 대한 약국 대상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게 됐다.

경남제약은 전국 11개 지점으로 구성



/이세경 기자

## “올 명절에도 정관장” 설 건강 선물 제안

정관장은 ‘올 설에도 정관장으로 말해요’ 캠페인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붉은 말의 기운에 정관장의 건강한 에너지를 더하며 설 건강 선물 수요 공략에 나섰다.

정관장은 홍삼정, 에브리타인, 홍삼톤, 천녹, 화애락, 다보록 등 대표 제품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매년 설 선물로 꾸준히 선택받아 온 스테디셀러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폭넓은 구성을 통해 선물 받는 이의 연령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 맥도날드, 봄시즌 한정 ‘해피 스낵’ 선보

창녕 갈릭 비프 스낵랩 등 6가지 메뉴

한국맥도날드가 대표 가성비 메뉴 ‘해피 스낵’ 신규 라인업을 3일 공개했다.

봄 시즌 한정인 이번 라인업에는 ▲창녕 갈릭 비프 스낵랩 ▲한입 초코 추러스 3조각 ▲맥너겟 4조각 ▲바닐라셰이크 ▲아이스 드립 커피(M) ▲아이스 드립 커피(L) 등 6가지 메뉴가 포함됐다.

‘창녕 갈릭 비프 스낵랩’은 한국맥도날드의 대표적 로컬 소싱 프로젝트 ‘한국의 맛(Taste of Korea)’의 확대 시행에 따른 신메뉴다. 출시 때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창녕 갈릭 버거’를 스낵랩으로 재해석했으며, 창녕 마늘의 깊은 풍



한국맥도날드가 대표 가성비 메뉴 ‘해피 스낵’ 신규 라인업을 3일 공개했다. /한국맥도날드

미를 담은 갈릭 아이올리 소스와 100% 순쇠고기 패티의 조화를 살려 기존 버거의 감칠맛은 살리면서도 더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입 초코 추러스도 다시 돌아온다. 한 입 크기의 바삭한 추러스 속에 진한 초코 필링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 인하대, 교육외교 공로로 ‘외교부장관’ 표창

인하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인재양성·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오른쪽)과 전태준 국제화사업 단장이 외교부장관 표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인하대



#### 한국남동발전, 준법·윤리경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남동발전이 투명·윤리경영을 앞세운 전사적 준법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월 30일 한국준법진흥원(KCI)이 주관한 ‘2025 Compliance & Ethics Leaders Awards’에서 준법·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남동발전



#### BBQ 이글 신입사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체너시스BBQ그룹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채 37기 신입사원 사령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류전형과 AI 역량검사, 실무 면접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으며, 경쟁률은 50대 1을 넘었다.

/체너시스BBQ



#### 용마로지스, ‘국제산림관리협 연계관리 인증’ 획득

국내 종합 물류 기업 용마로지스가 지난 2일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의 연계관리(CoC)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한국품질재단이 주관한 ‘FSC CoC 인증서 수여식’에서 송지영 한국품질재단 대표(왼쪽)와 박원순 용마로지스 경영지원실 상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 교원그룹, 상하이서 40주년 ‘교원 감사 나눔 투어’

교원그룹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교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교원 감사 나눔 투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 하이브리드의 힘… 현대차 ‘팰리세이드’ 판매 신기록

지난해 전 세계 21만 대 팔려  
전년비 판매대수 27.4% ↑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에란 분석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도매 판매(IR) 기준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대수는 21만 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



현대차 팰리세이드.

/현대자동차

은 판매고를 올렸다. 2024년 16만 5745대와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전 세계 수출대수는 연간 10만 대를 넘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본격적인 수출이 지

난해 5월 북미 시장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7만 3574대를 판매한 가솔린 모델에 하이브리드 모델(2만 8034대)까지 더해지면서 총 10만 1608대를 판매했다.

미국에선 4개월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1만 대 가까이 판매됐다. 전통

## LGU+, 보이스피싱 음성 제보 받는다

경찰청 캠페인 동참

LG유플러스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보이스 원티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수집해 성문 분석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피해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는 대국민 제보 캠페인이다. 국민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녹음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앱 ‘유플러스원(U+one)’의 플러스 메뉴를 통해 캠페인 내용과 제보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AI 무료 통화 앱 ‘익시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설정 없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돼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음성 데이터

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범죄 유형 분석과 수사 고도화에 활용되며, 향후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잡았다 목소리’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헤드폰, 조명 램프, 공예 소품, 모바일 간편결제 포인트 등 경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협업을 확대하고, AI 통화앱을 통해 확보된 보이스피싱 의심 음성 데이터 공유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분석하고, 악성 앱 설치 흔적이 확인된 고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우리銀, 과학인재 육성 위해 10억 기탁

미래 인재 발굴 지원

우리은행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1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나눔기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관에서 개최된 기금 전달식에는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왼쪽부터), 김용직 키스트미래재단 이사장, 오상록 KIST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이번 기금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석학 연구자 육성 ▲유망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육성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사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왼쪽부터), 김용직 키스트미래재단 이사장, 오상록 KIST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키스트미래재단은 KIST의 설립 취지를 계승해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연구지원과 인재육성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66년 KIST 설립 초기부터 파트너십을 지속 중으로, 이번 기탁은 오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공헌을 한층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중소업체, 4만명분 명절 먹거리 기부

전국 300여 곳 복지시설에 전달

중소기업계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300여 곳 복지시설에 4만 명분의 먹거리를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설과 추석에 명절음식키트를 만들어 전국 복지시설에 지원하며 소외계층에게 든든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 떡만둣국 키트는 1박스에 40인분으로 쌀 20kg과 소고기 3kg, 떡볶이 9kg, 만두 2.6kg과 코인육수로 구성됐다.

또한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김장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 설맞이 명절음식키트 전달식’에서 (왼쪽부터)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박성곤 웅달샌드롭인센터장, 박소현 우리마포복지관장, 김기문 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치 3000kg을 함께 지원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김승호 기자 bada@

## 롯데마트, 최강록 협업 요리 리뉴얼

선착순 고객에게 포토카드 증정

롯데마트가 이달 5일 최강록 셰프와 협업한 조리 요리 ‘나야, 돈테키’를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나야, 돈테키’는 돼지고기 목심과 특제 간장 조리 소스로 구성된 제품이다. 이번 리뉴얼은 ‘조림의 대가’로 불리는 최강록 셰프의 조리 철학을 반영해 고기에 칼집을 넣어 양념이 깊게 배도록 개선해 풍미를 롯데마트, 최강록 협업 ‘나야, 돈테키’ 리뉴얼해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신상품을 기념해 팬들을 겨냥한 이색 마케팅도 펼친다. 롯데마트는 이달 11일까지 해당 상품을 포함한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 6종을 구매하고

객 선착순 1만 5000명에게 ‘최강록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이 중 골드카드 당첨자 30명에게는 ‘최강록 LA갈비 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가격 할인 혜택도 더했다. 엘포인트 회원은 행사 기간 동안 돈테키를 비롯해 토시살, 살치살 등 ‘나야 시리즈’ 6종을 개당 3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시리즈는 지난 1월까지 누적 판매량 35만개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정지선 셰프의 ‘목화솜탕수육’, 정호영 셰프의 ‘키츠네 우동’ 등 유명 셰프 협업 상품도 20% 할인 판매하며 스타 셰프 마케팅을 강화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부음

▲조영욱 씨 별세, 조대근(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장)·윤아 씨 부친상, 김민정 씨 시부상, 김순성 씨 장인상 = 2일 오후 12시 43분,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광주영락공원. (062)521-

4444. ▲김영수 씨 별세, 김태호(자영업)·김태훈(한국투자증권 인사부장)·김기량(미래에셋증권 수석)씨 부친상 = 2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장례식장, 발인 4일, 055-249-1700.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amp;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붕괴’된 디지털 미술의 미래



홍 경 안 의  
시사 일 과

한때 ‘NFT’ (대체불가능토큰)는 디지털 시대 예술의 등기부등본이라 불렀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가상 환경에서 ‘유일성’을 부여한다는 논리는 매력적이었고, 2021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마이크 윈켈만(Beep1e)의 작품이 약 7,000만 달러에 낙찰되자 세상은 이를 ‘디지털 르네상스’의 서막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NFT로 생성한 후 원작을 소각하는 식의 극단적인 광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NFT 미술작품이 자생적 미학 가치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예상보다 일찍 나타났으며, 디지털 미술의 미래라고 불리던 NFT 시장은 불과 몇 년 만에 거래량이 90% 이상 급감하며 붕괴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디지털 파일이 물리적 회화를 대체하고 NFT를 통한 미술사적 맥락의 전환을 촉발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격적으로 NFT 영역에 진입했던 바이비트(Bybit) 등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수익성 악화로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NFT의

대중화를 견인했던 전문 마켓플레이스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또한 운영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장 영향력을 상실했다.

NFT가 내세운 핵심 가치는 ‘원본의 증명’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은 미술작품 자체가 아닌 특정 서버의 경로를 가리키는 ‘토큰’에 불과하다. 즉, NFT는 태생적으로 블록체인 상의 토큰화된 메타데이터이며, 디지털 이미지 소유권만 제공할 뿐 작품 자체의 내용이나 미학적 완성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실 NFT에 대한 열광은 자본주의 욕망의 크기와 비례했다. 작가도 수집가도 그랬다. 그러다보니 감상의 대상이어야 할 작품은 금세 ‘플리핑’ (단기 전매 차익)의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커뮤니티의 결속력과 유명 인사의 언급 한 줄이 작품의 질보다 우선시되었다. 냉정히 말하면 그것은 예술 시장이 라기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카지노’에 가까웠다.

예술사의 거대한 전환은 언제나 기술이 아닌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르네상스는 원근법이라는 도구에 앞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융입시켰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모더니즘은 재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술의 자율성을 선언했기에 혁명적이었으며, 1960년대 개념미술 또한 물질적 결과물

보다 사고의 구조를 예술로 정의하며 기존 가치 체계를 뒤엎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반면 NFT는 소유의 기록 방식만 바꾸었을 뿐, 예술의 정의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여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아니, 처음부터 예술이 NFT를 통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NFT라는 기술로 돈을 벌기 위해 예술이 ‘소모성 콘텐츠’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였기에 그럴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게 맞다.

물론 코드 기반의 생성 예술(Generative Art)처럼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거대한 투기 광풍 속에서 순식간에 휘발되었다. 여기에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민팅(minting),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자전거래, 그리고 불투명한 내부자 거래 등은 기술이 약속했던 ‘신뢰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파괴했다. 그러자 기술이 예술적 성취를 자동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와해됐다.

기술만으론 미학을 대신할 수 없다. 예술의 생명력은 기술적 증명이 아니라 미학적 밀도와 시대적 통찰, 그리고 비평적 논의에서 나온다. 제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미술평론가

## 기술 혁신이 불러온 갈등… 피지컬 AI 변화 흐름인가



기 지 수 섭  
양 성 운  
(산업부)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서 들어올 수 없다.”

전국급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최근 배포한 소식지에는 이같은 문장이 담겨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피지컬 AI 관심이 급격히 커지며 현대차, 테슬라 등 테크 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로봇을 개발하고 도입하려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선전포고에 가깝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6에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전환을 언급하자 이를 둘러싼 불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노조가 이처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도입에 따른 단순한 자동화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차가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 혁신을 강조하지만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도 로봇에게 한순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는 과거 현대차가 걸어온 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 자동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신형 i30를 출시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라인 자동화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 74명을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했

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약 한 달간 생산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현대차가 해외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자 국내 노조는 일찌감치 변화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사측은 고령화된 생산 인력 구조, 숙련 인력 부족,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면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 로봇 시대의 고용 안전망과 전환 노동에 대한 보상 등 미래 인간 중심의 로보틱스로의 안정적인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4일 (음 12월 17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취

60년생 마침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72년생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84년생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96년생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소

61년생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73년생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85년생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97년생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호랑이

62년생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74년생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86년생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98년생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토끼

63년생 당장은 마침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75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87년생 한 번 쯤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99년생 가능하면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양

64년생 오늘은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76년생 지금은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88년생 당장은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0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뱀

65년생 한 번 쯤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77년생 가능하면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89년생 오늘은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1년생 지금은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말

66년생 당장은 마침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78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90년생 한 번 쯤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02년생 가능하면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고양이

67년생 오늘은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79년생 지금은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91년생 당장은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3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원숭이

68년생 한 번 쯤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80년생 가능하면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92년생 오늘은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93년생 지금은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닭

69년생 당장은 마침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81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93년생 한 번 쯤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05년생 가능하면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돼지

70년생 오늘은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82년생 지금은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94년생 당장은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6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돼지

71년생 한 번 쯤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83년생 가능하면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95년생 오늘은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7년생 지금은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 김상회의四季

복을 부르는 입춘기도



올해 입춘은 양력 2월 4일이다. 겨울 추위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릴 때 새로운 절기인 입춘이 찾아온다. 글자를 보면 입춘의 뜻은 봄이 선다는 것인데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로, 이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되니 자연의 기운이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운이 일어선다는 뜻을 지닌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입춘기도를 드렸다. 만물이 소생하고 우주의 기운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기도를 드리면 간절한 소망이 천지에 쉽게 닿고 효험이 크다. 입춘기도의 중요한 염원은 액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입춘 절기에 정화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묵은해의 탁한 기운이나 지난날의 불운이 깨끗이 정화된다.

입춘기도 후에는 마치 대청소를 마친 집처럼 마음과 삶의 공간에 길운이 깃들 여유가 생긴다. 입춘 즈음에 입춘대길, 건양대경 문구를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이유도 복을 불러들이고 경사를 맞이하겠다는 기도의 마음을 시각화한 것이다. 입춘기도는 좋은 기운을 집안과 개인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 효험 좋은 통로가 된다.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마련이다. 시험 합격을 빌면 공부할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사업 번창을 빌면 경영 아이디어 발굴에 더 매진한다. 그렇게 기도는 하루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입춘기도는 복을 부르는 의식이면서 복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니 입춘에 뿌린 기도의 씨앗은 봄의 생명력과 만나 올 한 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 입춘에 올리는 정성 어린 기도가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힘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4			9
			9			6
	1			3		
			2			5
	7					2
	3		8			
			1			4
4				7		
1			6			7

			8		1		3
	1	8					
				7			
		2			4		
8			2		6		5
		3			7		
			8				
					6	5	
1	4		7				

8	2	9	6	9	1
9	9	1	6	8	2
2	6	9	1	8	9
1	6	9	1	8	9
1	2	6	9	1	2
8	9	1	2	1	6
7	8	1	9	9	1
9	8	2	1	6	2
6	1	9	1	2	9

2	6	8	1	2	9	1
1	9	9	1	2	6	8
1	1	8	9	8	1	2
9	2	1	1	6	1	9
9	8	6	9	1	1	8
8	1	1	9	1	2	6
6	8	2	1	9	1	9
7	9	1	2	6	8	1
8	1	1	1	8	9	2



# 베트남 대입에 TOPIK 반영 위상 높아진 한국어, 입시까지 접수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서 한국어능력시험 공신력 인정  
홍콩 이어 두번째로 해외대입 활용  
3등급 이상이면 외국어 1과목 면제

202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3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입에 활용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에서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를 필수로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외국어·역사·물리·화학·생물·지리·경제·법·정보·기술 등 9개 과목 중 2개를 고른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한국어·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중국어·독일어·일본어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총 4개 과목 성적이 반영되며, 과목별 10점 만점 기준 평균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한국어 채택 현황	한국어반운영	47개국, 2777개교
	정규 교육과정	24개국
	대학입학 활용	11개국
TOPIK 지원자 수		56만6665명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25만3434명
		베트남
		169개교 (한국어반 학생 수 3만3271명)
		2020년 제2외국어 채택 2021년 제1외국어 채택 2021년 졸업시험 과목 채택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입 반영
		8만5896명 (국외시행 1위)
		7만5144명 (2위)

자료/교육부

5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해 학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근거해 운영된다. 시험은 초급 수준의 TOPIK I, 중·고급 수준의 TOPIK II,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TOPIK 말하기 평가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로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이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은 전 세계 47개국의 정규 초·중·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중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국가는 24개국, 대입에 반영한 국가는 11개국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학년 초부터 말까지 교육 지원

신학년·학교급 전환기 맞춤 지원  
교육과정·수업·평가 설계 도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존의 학교 자율 기반 교육과정 운영 틀은 유지하면서도 2월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과 학년 말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새로 결합해, 학년 시작부터 전환기까지 끊임 없이 이어지는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년을 앞두고 2월 중 3~5일간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해 학교가 새 학년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학년 말에는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추진해 학생들이 학교급 변화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는다.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에는 전 교직원 함께 학교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새 학년 교육활동을 공동 설계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학년 초부터 ‘학생과 수업에 집중하는 달(3월)’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전년도 학교평가 결과와 교육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기간과 연

수·협의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연간 교육과정·수업·평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수업·평가 혁신 연수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기초학력 강화 방안 논의 ▲전입 교원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년 말에는 초·중·고·고3을 대상으로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교급 전환에 따른 학습과 생활 변화에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중학교 생활과 학습 환경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기 핵심 학습 요소를 반영한 40차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초6 담임교사 대상 연수도 함께 운영한다.

중학교 3학년은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순회강좌’를 운영해 진로·진학 불안을 완화한다. 또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7개 교과군 교수·학습 자료집을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 연수와 강의 동영상 제작한다.

고등학교 3학년은 졸업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대학 생활 이해, 사회 적응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화성시, 4개 구청 체제… 생활권 행정 연다

만세·병점·동탄·효행 4구청  
현장 밀착형 행정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체제인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구청 체제 출범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화성특례시는 만세구·병점구·동탄구·효행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조례 제·개정과 조직 구성, 예산 편성, 청사 확보 등 구청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청 체제라는 의미도 담았다.

아울러 구청 체제의 핵심 가치로 ‘30분 행정서비스’를 제시하고, 생활 속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기 보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개청식은 2월 2일 만세구청을 시작으로, 5일 병점구청과 동탄구청, 6일 효행구청 순으로 열리며, 이와 함께 4개 구청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화성특례시는 개청 초기 행정 공백과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출범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구청 체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 내달 17일까지

1학기 장학금 마지막 신청 기간  
신입생·재학생 등 모든 학생 대상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3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번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이번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된다.

2026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600

만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원), 4~6구간은 44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원), 7~8구간은 36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원), 9구간은 10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구간이 현행 10개 구간에서 5개 구간 체계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터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2027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15만원

취약계층 문화체육활동 지원

고양시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본격 시작했다. 시는 2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신청과 발급을 진

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제감 혜택을 높였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인당 연간 지원금

이 기존보다 1만 원 늘어난 15만 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청소년기, 준고령기에 해당하는 시민에게는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대상자에 따라 더 넉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엔저 계속에…日재무도 “다카이치, 엔저 이점 강조안해” 해명  
▲中, ‘베이징·톈진·허베이 현대화계획’ 승인…  
송안신구 개발 지속

/사진 뉴시스

▲日연립여당 중의원選 후보 10명 중 9명 “핵 공유 검토해야”  
▲두 얼굴의 베트남…美와 전쟁 대비하면서 무역 협상 양면 전술

▲러 외무부, 美 거냥 “이란 공격 용납 못해…쿠바 위협 우려”  
▲영국 前장관, 엡스타인에 경제정책 유출했나…  
속옷 차림 사진도





유통업계  
생리대 부담 덜다  
1+1 초저가 경쟁  
L1

# metro<sup>®</sup>

Life

건기식 ODM  
글로벌 플랫폼  
도약  
L2



## 실내·주행·연비 업그레이드 소형 SUV ‘최강자’의 귀환



### The all-new Seltos

#### YG의 CAR TALK 카톡

##### 디 올 뉴 셀토스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절대 강자인 셀토스가 실내 거주성과 첨단 기술을 강화해 돌아왔다. 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중형 SUV의 주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기아 ‘디 올 뉴 셀토스’의 효율성과 정숙성을 앞세운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 구간은 왕복 약 90km로,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등 일상적인 주행환경을 포함했다.

◆주차 부담 줄이고, 실내공간 더 넓어져  
소형 SUV 셀토스의 매력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느낄 수 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하는 중형, 대형 SUV와 달리 초보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다. 우선 셀토스의 회전 반경은 약 5.3m로 좁은 공간에서도 비교적 쉽게 주차할 수 있고, 후측방/사라운드 뷰 등 주차 보조 기능이 주차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다. 특히 운전석에 앉으면 전폭이 넓어지며 전방 시야가 안정적이었고, 사이드미러도 큼직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실내 공간은 기존 소형 SUV 대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셀토스는 기존 모델 대비 전장 40mm, 축간거리 60mm, 전폭 30mm 확대돼 전장 4430mm, 축간거리 2690mm, 전폭 1830mm, 전고 1600mm이다. 특히 2열 헤드룸과 레그룸이 각각 14mm, 25mm 늘어났다. 2열은 최대 24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시트를 장착했다. 단순히 공간이 넓어졌다는 느낌보다 편안해졌다.

회전반경 짧아, 주행·주차 부담 완화  
기존보다 실내공간 넓고, 편리해져  
하이브리드 장착… 연료효율 극대화  
주행상황 판단 ‘스마트 제동 시스템’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 옵션 제공도

##### ◆연료 효율성·주행성능 ↑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대 강점인 연료 효율성은 도심에서 극대화됐다.

서울 도심과 간선도로에서 셀토스 1.6 하이브리드는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차처럼 모터 위주로 움직이며 빠른 응답성을 자랑했다. 이후 속력을 높이자 엔진이 개입했지만 진동이나 이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의 정숙성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진화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은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차량 속도 감속 시 회생

제동을 진행하는게 아닌 앞차와의 거리, 도로 흐름, 주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 스스로 감속 강도를 조절해준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도로의 흐름을 읽고 주행하는 느낌이 강했다.

연료 효율성은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만족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1.6L 가솔린 엔진과 32kW급 구동모터의 결합으로 시스템 최고출력 141마력, 최대토크 27.0kgf·m, 최대 복합연비 19.5km/L를 확보한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한 결과 실제 연비는 18.6km/L를 기록했다.

##### ◆나만의 작은 콘서트장

주행 중 애플플레이어로 음악을 재생하자 차량안은 어느새 조그만 공연장으로 바뀌었다.

이날 시승한 디 올 뉴 셀토스의 X라인에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가 옵션으로 제공됐다. 음악의 저음 영역대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시트 진동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시트 쿠션의 하벽지와 등받이 하단에 위치한 4개의 진동자가 미세하게 ‘쿵쿵’ 두드리며 진동을 줬다.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한 뒤 주변 환경을 즐기는 동안 하만카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시트가 진동하자 이동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나를 위한 쉼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셀토스는 강력함이나 속도감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다.

2세대 셀토스 1.6 하이브리드 가격은 ▲트렌드 2898만원 ▲프레스티지 3208만원 ▲시그니처 3469만원 ▲X라인 358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주행 모습.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실내.

/양성운 기자

#### M 수입차 News

### BYD코리아 ‘천하제빵’ 브랜드 파트너 참여

BYD코리아가 MBN 예능 프로그램 ‘천하제빵: 베이커 유어 드림’에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하며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천하제빵: 베이커 유어 드림’은 최근 하나의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K-빵’ 열풍을 조명하고, 세계 최강의 제빵사를 가리는 국내 최초 ‘K-베이커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철학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강의 베이커로 선정된 프로그램 우승자에게는 BYD의 프리미엄 중형 전기 SUV ‘BYD 씨라이언 7(BYD SEALION 7)’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BYD 씨라이언7

###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가장 안전한 ‘도심형 소형차’ 선정

MINI 코리아는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이 발표한 ‘2025 가장 안전한 도심형 소형차’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는 유로 NCAP이 지난해 테스트한 차량들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차급별 가장 안전한 모델 중 ‘2025 가장 안전한 도심형 소형차’에 이름을 올리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실제 주행 상황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에서 SE는 물론 JCW까지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의 모든 라인업이 최상의 안전성을 입증하며, 경쟁 모델 대비 안전성 우위를 공식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 볼보자동차코리아 ‘마니또 클럽’에 주요모델 5종 지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MBC 신규 예능 ‘마니또 클럽’에 플래그십 SUV ‘XC90’과 플래그십 세단 ‘S90’, 중형 SUV ‘XC60’, 콤팩트 SUV ‘XC40’, 순수전기 SUV ‘EX30 크로스컨트리(CC)’ 등 주요 모델 5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만식 볼보자동차코리아 전무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미션과 빠른 전가가 특징인 마니또 클럽을 통해 볼보차 주요 모델들이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경험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니또클럽에 지원하는 XC90.

#### 메트로 한줄뉴스



▲K리그1 인천, 다국적 무대에서 검증된 공격수 페리어 영입  
▲여자농구 국민은행 박지수, 4라운드 MVP…통산 19번째 선정 /사진 뉴스시스

▲여자배구 최고 리베로 기업은행 임명옥,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  
▲PSG, 거취 흔들리던 이강인 불잡기 나선다…“재계약 목표”

▲LPGA 투어 개막전 5위 황유민, 세계랭킹 4계단 오른 28위  
▲혹한기 축구에 머리 싸맨 서울시·FC서울…2월 홈경기 신중 검토